

발행인

마남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

“**농업, 농촌은 환경·생명·문화·미래다**”

-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
총체적 사업 활성화 등으로 경쟁력 키울 것

>>> [대담 _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장)]

>>> [정리 _ 오세진 기자]

농업·농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흔히 산업의 한 분야로 분류되지만, 문명과 함께 태동해 자연과 소통하며 이루어내는 인류의 끝없는 도전,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면 지나친 편애일까. ‘농업·농촌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행사가 펼쳐져 농축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청내에서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을 개최한다.

특히 오랜 농민단체 생활을 통해 농정 관련 현장 경험이 풍부, 지난 2월 농축산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임한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사업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경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1992년부터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WTO 국민연대 사무총장에 이어 정책실장실 농어촌 비서관 등을 역임, 효율적인 대외협상과 함께 농진청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TA, DDA 협상 등 개방화의 물결 속에 농촌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피드저널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은 7월12일 농촌진흥청 청장실에서 김 청장을 만나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과 농어축산업 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유동준 : 늦은 감이 있지만 농촌진흥청장에 부임한



▲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

것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축산·농업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취임 후 농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를 회고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김인식 : 김남용·유동준·강춘성·최준구 회장님 등 존경하는 농축산업계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겨두고 있다.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한 삶의 자세를 보며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먼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 농민단체 시절에는 부동산업자나 기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틈 날 때 마다 현장에 갔는데 지금은 아무자리에나 붙쑥 온

다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웃음)

유동준 :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정적인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100년 기념사업을 당초 3일간 진행할 것으로 계획했다가 5일로 연장하는 등 대규모 행사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업의 의의와 주요 일정은.

김인식 : 이번 사업은 환경·생명·문화·미래인 한국농업의 지난 10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8월8일에는 3만여명을 모시고 KBS 열린음악회



▲ 본지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

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 농업 근현대화 100년사 발간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과거 100년의 농업 발전 성과와 역사적 의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8월30일부터는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농업인, 소비자 및 농민단체, 농업관련 기관 등의 성과를 전시하는 농업기술 대축전(8. 3~9. 3), '한국 농업-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주제로한 2006 농업과학심포지엄(8. 30~31) 등의 학술활동을 비롯해 농업 역사관련 사진전(8. 30~9. 1) 등을 개최한다.

유동준 :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농촌 문제 해결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 지난 5월 농진청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한 기술 개발 보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국민 혁신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과 청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혁신과제는 무엇인가.

김인식 : 지난 2월1일 부임한 이후 우리 청이 국민과 농업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외부의 시각을 겸허히 수용기로 했다.

이에 농촌진흥사업 혁신토론회를 개최하고 1~2차에 걸친 각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 설립 100주년에 즈음해 '농촌

진흥청 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이라는 비전과 국민소득 2
 만불 시대를 뒷받침하는 농업경쟁력 확보,
 농촌 활력증진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한 삶
 의 공간 제공,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
 는 정예 농업인력 양성이라는 중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

유동준 : 올 하반기 및 2007년도의 농축산업계의 최
 대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한
 농진청의 대처방안 등 계획은 무엇인가.

김인식 :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시장
 은 체계적인 유통질서가 미흡해 고품
 질이라도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낮아 국내
 의 소비자로부터 제값을 못 받는 등 소비자
 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농업연구개발보급사
 업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R&BD사업
 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탑 라이스' 프로젝트다. '탑 라이스' 사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근간으로 삼아 금년내
 '탑 프루트'라는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는
 등 과수, 채소, 축산분야까지 점차적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혁신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준 : 개방화에 관련해 말하자면 최근 DDA 농업
 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이 발표되고,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는 등 농업개방이 가속
 화돼 농축산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를 바라
 보는 시각과 정부, 농가 등 각 주체가 세워
 야할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김인식 : 전체적인 국익을 고려하고 최상의 협상안
 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A 협상에 대비해 우리 청에서는 농업
 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기술 개
 발과 보급에 더욱 매진코자 한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함께 장미, 딸기 등
 우수 국산품종의 개발·보급으로 대외 로
 열티 문제를 해결하며, 수입육 판별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고유의 재래 닭 생산 등 차
 별화 기술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우리 농업인들도 세계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외국이나 다른 지역, 그리고 동
 종의 타농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기
 술습득과 개발, 브랜드화 판매 전략에 이르
 기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자세로 노력
 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농가의 기술수준 향상과 상품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역단위의 조직화와
 규모화 등 공동노력을 통해 지역단위 또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유동준 : 기술개발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파리를 이용한 사료, 양봉 사료 개발 등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청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와함께 최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각광받고 있는 총채보리의 수확량이 냉해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량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등 대책이 있다면.

김인식 : 올해 냉해와 봄 가뭄 등으로 인해 총채보리 수량이 평균 1.7톤/10a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35%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 청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총채보리 전용품종 '영양보리'는 올해 연결체 사업단에 시범 재배한 결과 일반보리에 비해 29%, 최고 71% 증수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2만5천ha에 재배 가능한 5천톤의 보급종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며, 우리 청에서는 보급종이 공급되기 전까지 자체 종자를 연결체 사업단에 공급하고 자체 채종을 유도, 2006년에는 500ha, 2007년에는 5천ha로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총채보리의 수량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 한발해, 병해 등 각종 재해에 더욱더 강한 품종개발과 다수확 재배기술을 조속히 확립, 안정적으로 다수확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총채보리와 함께 총채벼 사업도 올해 안에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계획중이다.

유동준 : 총채벼 사업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해 달라.

김인식 : 조사료 수입대체효과와 자원 활용 등을 위해 총채보리와 함께 총채벼 사업도 활성화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천평의 땅에 벼만 경작해 1천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총채벼 등을 2~3기작으로 경작했을 때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면, 30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등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에는 총채벼 시범포 사업을 추진하고 작물생산이 많은 호남지역과, 가축사육을 많이 하는 영남 지역 등 협동조합간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동준 : 총채벼 사업이 활기를 띄기를 기대하겠다. 인터뷰에 응해주 고맙다. ☺

